

2016년도 한국호텔관광학회 제35차 춘계학술대회

현 호텔관광산업 진단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구축방안 모색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호텔관광학회
- 주 관 : 세종대학교
- 후 원 : 힐스파이브(Hills Five)/호텔온(Hotel On), 롯데호텔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여의도메리어트호텔, 선샤인호텔, 안산리오관광호텔, CJ푸드빌(뚜레쥬르), 아워홈(샤보텐), 영산대학교, 청운대학교, 해전대학교
- 일 시 : 2016년 4월 30일(토) 11:00-18:00
(이사회: 11시 30분, 공개토관 613호)
- 장 소 : 세종대학교 공개토관 6층
- 참가비 : 2만원(중식, 석식, 발표논문집, 기념품 포함)



(사)한국호텔관광학회

The Academy of Korea Hospitality & Tourism

목 차

■ 주제발표

- 주제 1: 호텔업의 현재와 미래 윤연선 이사(포시즌스호텔) 1
- 주제 2: 여행업의 변화(하나투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석현 이사(동남아 지역본부장) 6
- 주제 3: 연구자 연구윤리교육
..... 이민호 박사(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진흥팀) 11

■ 제 1 주제 : 호텔외식경영, 장소 : 광개토관 6층 617호

- 직무요구-자원모형을 활용한 호텔종사원의 직무열의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채신석(인하공전) 31
- 예약인회 선택속성과 IMC활동이 고객만족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이상훈(영산대) 50
- 소득계층과 연령에 따른 외식수요함수 추정 모수원(목포대)·이광배(순천대) 73
- 직무특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외식업을 중심으로-
..... 이창원(이대창업21대표) · 문주현(혜전대) 83

■ 제 2 주제 : 관광경영 1, 장소 : 광개토관 6층 616호

- 항공사 서비스의 공정성과 관계자산이 여행사 감정반응과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영주(한양대) 93
- 객실승무원의 직업소명 의식, 자기효능감, 서비스지향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소영(청운대) 109
- 명동 쇼핑관광 수용태세가 서울 도시관광 이미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관광객을 중심으로 장양례(숭의여대) 126
- 프랜차이즈본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최황택(세종사이버대) 137

■ 제 3 주제 : 관광경영 2, 장소 : 광개토관 6층 615호

- 전시킨벤션 내생적·외생적 참가동기와 웰니스지수, 생활만족과의 관계연구
..... 양진연(경남대)·선종갑(경남대) 147
- 서비스공정성지각과 서비스품질지각이 신뢰와 고객반응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가/저가 브랜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정애(영남대) · 김동진(영남대) · 변광인(영남대) 162

G20 서울정상회담 환영리셉션 업무만찬 의궤의 이벤트 아이덴티티 연구 황금들(건국대) · 박기천(건국대) · 유동환(건국대)	188
휴먼웰니스를 위한 힐링관광상품 개발 연구- 명상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오선숙(원광보건대)	201

▣ 제 4 주제 : 기타 호스피탈리티, 장소 : 광개토관 6층 613호

소비자 가치에 따른 브랜드장류의 제품선택속성 연구- 식품안전지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명소형(가톨릭관동대) · 윤덕인(가톨릭관동대) · 지계웅(가톨릭관동대)	225
교육서비스품질이 학생만족과 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영표(가톨릭관동대)	239
여가와 여가만족, 삶의 질의 관계 허중욱(강원대)	255

주제 1: 호텔업의 현재와 미래
(발표: 윤연선 이사, 포시즌스호텔)

호텔관광산업의 동향 및 전망

발표자 : 윤연선

일 시 : 2016년 4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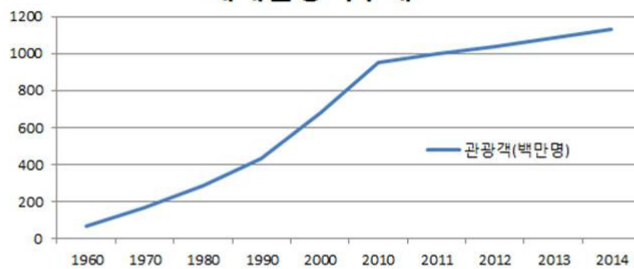
장 소 : 사단법인 한국호텔관광학회

목차

- 세계 관광동향
- 국내 호텔관광산업의 동향
- 국내 호텔관광산업의 전망
- 호텔산업의 전망

세계 관광동향

세계관광객추세



연도	관광객(백만 명)	성장률(%)	관광수입(10억\$)
1960	69	10.6	7
1970	166	9.1	18
1980	284	5.5	103
1990	436	7.5	263
-	-	-	-
2000	678	8.1	475
2010	949	6.5	966
2011	997	5.1	1,082
2012	1,038	4.2	1,117
2013	1,087	4.7	1,197
2014	1,123	4.3	1,246

국내 호텔관광산업의 동향

- 유가하락, 국민해외 관광객의 증가
- 국내 인바운드 마켓의 변화
- 일본관광객의 감소
- 한-러 비자 면제로 인한 러시아 관광객 증가
- 아랍권 지역의 관광객 증가

국내 호텔관광산업의 동향

- 동남아시아 지역의 관광객 증가
- New Generation의 Life style 변화
- 서울시내의 호텔의 초과 공급 우려
- 호텔 서비스의 질적저하 초래

국내 호텔관광산업의 전망

- 항공업계의 성장세 지속
- 호텔업계의 매출 감소
- Casino 업의 성장세 둔화 및 감소
- 호텔 양극화 현상 심화

호텔산업의 전망

-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호텔의 등장
 - 가족 단위 호텔
 - 도심 휴양호텔
 - Small Business를 위한 호텔
- Target Marketing의 강화
- 호텔 조직의 재편 및 구조 변화

호텔산업의 전망

- 호텔 식음료 사업의 변화
- 호텔 수익구조 변화 모색
- 정부 지속적인 지원 정책 및 호텔 산업 활성화 대책 필요
 - 영세율
 - 법인세율
 - 전기세 감면 혜택

감사합니다

주제 2: 여행업의 변화(하나투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김석현 이사, 동남아 지역본부장)

여행업의 변화

HANA TOUR

세계경제는 지금

저성장

지금의 성장기는 과거 불황기와는
다른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

NEW NORMAL 시대

초경쟁

수요는 예전처럼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공급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시기



한국경제는 지금

가계 부채의 그림자

부동산 하락과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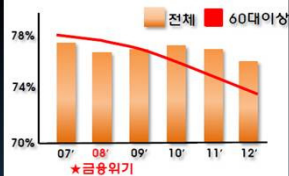


- 주택담보대출 총액 400조 임박, 대출자 수 약 500만명
- 부동산 가치 하락, 담보 금액 증가

● '주택담보대출' 급증 추세

소비지출 증가율 둔화

평균 소비성향 추이



가계의 소비지출 수준 변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평균소비성향은 정체하거나 하락
- 특히 60세 이상 고령가계는 크게 하락
- 60대 이하 가계도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

선택소비 비중 확대

필수소비 비중 축소

품목	2003	2011	2012 (~3Q)	변동
식료품, 음료	16.7%	13.6%	13.4%	↓
의류, 신발	6.4%	6.6%	6.1%	↓
교통	12.2%	12.0%	11.6%	↓
음식, 숙박	13.7%	12.5%	12.7%	↓

품목	2003	2011	2012 (~3Q)	변동
통신	5.4%	6.3%	6.8%	↑
교육	12.0%	12.6%	12.9%	↑
문화, 여행	4.8%	5.5%	5.9%	↑

선택소비 비중 확대

여행소비 비중 확대

● 문화, 여행 품목 소비비율(국내포함)



Source: 통계청

필수소비 비중 축소

품목	2003	2011	2012 (~3Q)	변동
식료품, 음료	16.7%	13.6%	13.4%	↓
의류, 신발	6.4%	6.6%	6.1%	↓
교통	12.2%	12.0%	11.6%	↓
음식, 숙박	13.7%	12.5%	12.7%	↓



매년 인천공항 출국자수 역대 최고 기록 경신

그런데.....

[여행사들의 역대최고 매출 기록
경신은 왜 안 나올까?]

여행비즈니스환경의 변화

시장환경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시장의 주도권은 공급자에서 “고객”으로 넘어갔다.
 고객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고객은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리고.....경쟁



시장선도!! 곧, 고객과 함께 하며 고객을 리딩하는 것

기존사업과 신규사업간 균형 성장을 통한 VISION 달성

NOKIA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
 목재 펄프 공장, 고무회사,
 전선회사, 핸드폰 회사

Apple

'컴퓨터'라는 주력 제품 대신
 '전자회로와 기억장치회사'로
 사고의 틀을 전환
 MP3, 핸드폰등으로 사업확대
 아이팟(iPod)과 아이폰(iPhone)

발상의 대전환

IBM

하드웨어판매회사?

No!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나는 고객의 입장,고객의 관심을 가지고 IBM에 왔다"

-루이스 거스너

NI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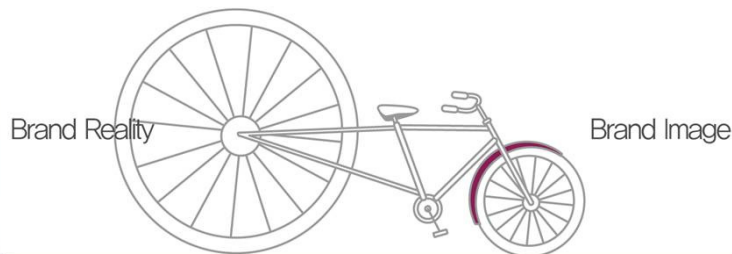
제조 등 비핵심업무는 아웃소싱
 브랜드,디자인,마케팅 등
 핵심역량 중심운영

신규사업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라
 경쟁의 틀을
 바꿔라

기존사업

고객중심적으로
 기존 사업을 재편하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라



앞바퀴와 뒷바퀴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절대 속도가 나지 않는다.”

하나투어 신사업



주제 3: 연구자 연구윤리교육 (발표: 이민호 박사,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진흥팀)

한국호텔관광학회 연구윤리 특강
(2016. 04. 30)

연구윤리 정책현황과 정보의 활용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조성실 이민호

한국연구재단 지원
CRE 연구윤리정보센터
Center for Research Ethics

[Twitter](#) [Facebook](#) [RSS](#)

통합검색

[CRE](#)
[국내외 소식](#)
[연구윤리주제](#)
[정책 및 규정](#)
[종합자료실](#)
[커뮤니티](#)
[상업센터](#)

연구부정행위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양해야 할 행위의 정보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보겠습니다.

지식계시관

학위 소위에서

결과물을 활용

연구윤리정보실

자료실

42 CFR Part 93 (중본, 번역본 포함) : OIR
Statistical decision and falsification
고등연구윤리지침 - 고리대학교
UNESCO 사회과학연구 가이드라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활동현황

| Contents



1. 연구윤리 정책의 현황



2. 연구윤리 정보의 활용



3. 종합 정리

2



1. 연구윤리 정책의 현황



1-1. 연구윤리 문제의 발생

1-2. 연구윤리 정책 시행

1-3. 연구윤리 정책성과 평가

1-4. 연구윤리 정책 개선

3

1-1. 연구윤리 문제의 발생(연구부정행위)

◆ 배아줄기 세포 관련 논문 조작 사건 발생(2005년 12월)

- 연구부정행위 종합 사례 :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비 횡령
-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관심을 일깨운 기폭제
-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합의 계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공포(2007년 2월 과기부 훈령)

◆ 연구부정행위 의혹제기 및 발생(지속적)

- 총장 후보, 고위공직 후보자, 교수와 제자 간 등

◆ 연구부정행위 의혹제기 및 발생(광범위)

- 인기 연예인, 스타강사, 체육인, 종교인 등

4

1-1. 연구부정행위 유형(논문표절 위주)

◆ 부정행위 유형별 위반 건 수[08년~12년간, 한국]

구분	표절	부당저자표시	중복게재	대필등	위.변조	계
건수 (%)	101 (59.8)	33 (19.5)	18 (10.7)	10 (5.9)	7 (4.1)	169 (100)

* 출처: 교육부 조사자료(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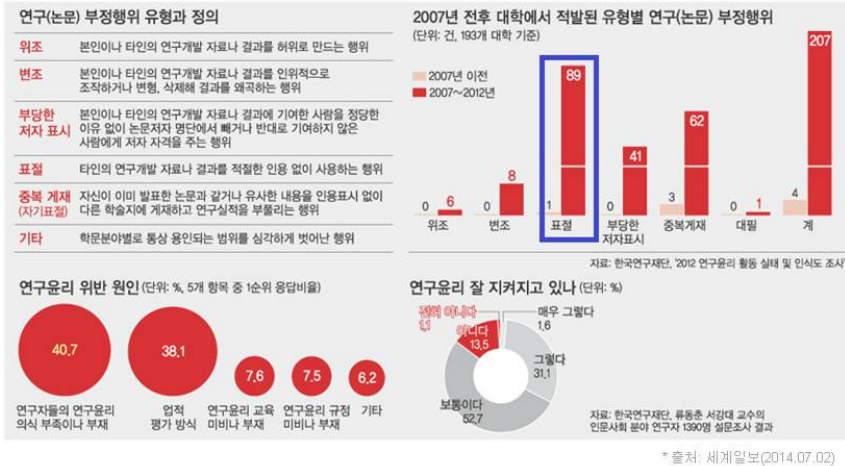
◆ 부정행위 유형별 위반 건 수[94년~11년간, 미국]

구분	변조/위조	변조	위조	변조/표절	표절	위조/변조/표절	위조/표절	계
건수 (%)	60 (42.6)	55 (39.0)	11 (7.8)	7 (5.0)	5 (3.5)	2 (1.4)	1 (0.7)	141 (100)

* 출처: http://ori.hhs.gov/annual_reports; ORI 백서 표 재구성

5

1-1. 연구부정행위 유형(논문표절 위주)



6

1-1. 연구부정행위 원인

◆ 양적평가, 경쟁심화, 연구자들의 부담 증가

nature Vol 463/14 January 2010

NEWS

Publish or perish in China

The pressure to rack up publications in high-impact journals could encourage misconduct, some say.

The latest in a string of high-profile academic fraud cases in China underscores the problems of an academic-evaluation system that places disproportionate emphasis on publications, critics say. Editors at the UK-based journal *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E* last month retracted 70 published crystal structures that they allege are fabrications by researchers at Jiangnan University in Jiangxi province. Further retractions, the editors say, are likely.

Chinese universities often award cash prizes, housing benefits or other perks on the basis of high-profile publications, and the pressure to publish

improve the research capacity of a very large system — with significant variations in quality — to be a world-class player in science.”

Two weeks ago, reacting to the retractions of the crystallography papers, Jiangnan University fired the correspondent authors, Zhong Hua and Liu Tao. It is unclear whether their co-authors, who include researchers from other institutions in China, will also be investigated.

The journal's editors say that the discrepancies came to light during tests of software designed to flag possible errors and unusual chemical features, such as abnormal distances between atoms. The

UK, who is one of three section editors for the journal, would not discuss the ongoing investigation but says that the generation of large numbers of structures by one group would not necessarily raise questions, because diffractometers can easily collect a couple of data sets a day. “In terms of papers submitted to *Acta E*, the vast majority coming from China are correctly determined structures, and they make a valuable contribution to science,” he says.

Nevertheless, the Wuhan University study suggests that misconduct could be widespread in many fields. The team, led by computer scientist Shen Yang, used website analyses and onsite investigations to identify a wide range

출처: 발표자료(이원용, 2014, 연세대)

7

1-2. 표절에 대한 해외 저널들의 예방 노력

Journals step up plagiarism policing : Nature News

Published online 5 July 2010 | *Nature* **466**, 167 (2010) | doi:10.1038/466167a
News

Journals step up plagiarism policing

Cut-and-paste culture tackled by CrossCheck software.

Major science publishers are gearing up to fight plagiarism. The publishers, including Elsevier and Springer, are set to roll out software across their journals that will scan submitted papers for identical or paraphrased chunks of text that appear in previously published articles. The move follows pilot tests of the software that have confirmed high levels of plagiarism in articles submitted to some journals, according to an informal survey by *Nature* of nine science publishers. Incredibly, one journal reported rejecting 23% of accepted submissions after checking for plagiarism.



Look out plagiarists —
you are being watched.

I. LOGAN/GETTY
IMAGES

출처: 발표자료 (이원용, 2014, 연세대)

8

1-2. 연구윤리 교재 개발

◆ 제작 주체 : 재단 및 정보센터



(2011년)



(2014년)



(2015년)

※ '연구윤리정보센터' 에서 다운로드 가능

9

1-2. 연구윤리 홍보 활동

◆ 연구윤리 방송물 제작

- EBS 지식채널 e」: “지식도둑” (13.6.25)
- YTN사이언스」: “연구의 정석” (15.8.13)
- TED 방식의 영상을 제작(책임자편, 대학원생편)



◆ 연구윤리 뉴스레터 발간/배포

- 온라인 뉴스레터 방식: 연정研精
- 연구윤리 리포트, 국내외 동향, 웹툰 제공
- 발간(월 1회)
- 이메일 발송: 정보센터 회원 등(약 2,400명)



10

1-3. 연구윤리 정책성과 평가

◆ 연구윤리 제도 및 시스템의 형식화

- 양적성장(규정제정, 부서설치), 질적 부실(전담인력 및 운영실적 부족)

제도 및 시스템	양적 성장	질적 부실		
	제정 및 설치	전담직원 근무	근무인원 (전담 or 겸임 1인 이하)	연간 개최횟수 (1건 이하)
연구윤리 규정	93.4% (157개 대학)	N/A	N/A	N/A
연구윤리 부서	97.6% (163개 대학)	35.3% (59개 대학)	49.1% (82개 대학)	N/A
연구진실성위원회	61.4% (103개 대학)	N/A	N/A	55.3% (57개 대학)

* 조사기간: '13.4.12~5.3, 조사주체: 교육부, 응답대학: 167개 4년제 대학

11

1-3. 연구윤리 정책성과 평가

논문 '쉽고 편하게 쓰자' 인식 만연... 표절 드러나도 쉬쉬

[신뢰사회 도약 프로젝트] © 연구부정 행위 뿌리뽑자

이로 인해 연구윤리지침이 규정한 논문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 행위에 자유로울 수 있는 연구자는 드물 것이라고 A교수는 전했다. 더 심각한 것은 연구윤리지침 도입 후에도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접할까 느끼지 못하거나 관행이란 보호막을 앞세워 무엇이 부정을 저지르는 통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도 연구윤리 관련 뿐만 아니라 복지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에는 관심이 적었다.

그 결과 정·관계 고위공직(후보)이나 명문대학 교수는 물론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 유명 인사가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다. 하지만 '심각한 논문 표절' 판정을 받고 박사학위가 취소됐음에도 사과 대신 법원에 박사학위 취소 소송을 낸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나 연구부정 의혹을 받는 인사가 고위 공직에 자연스레 임명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교육학자 출신인 김영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2008년 7월 이후 논문 중 5건이 표절과 부당한 저자 표시 의혹에 휩싸였지만 "잘못한 게 전혀 없다"며 청문회에서 모두 소망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학계의 연구윤리 불감증이 중증이란 사실은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류동춘 서강대 교수(중국어문학)에게 의뢰한 인문사회 분야 연구윤리 매뉴얼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류 교수가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 1390명을 상대로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는 원인을 물자, 1순위 답변으로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외식의 부족이나 부재'(40.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공직자가 연구부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사퇴하는 선진국의 엄격한 연구윤리 문화와는 거리가 먼 셈이다.

독일에서는 2011년 차세대 보수 지도자인 카를 테오도어 추 구텐베르크 국방장관과 지난해 알제리 메르셀 총리의 측근인 아네테 사반 교육장관이 논문 표절로 물러났으며, 슈미트 말 한기리 대통령도 2012년에 논문 표절 문제로 사임했다.

연구윤리지침 제정에 참여한 '박기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기인재정책센터장은 "최대한 연구부정을 방지하고 줄여자는 차원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구조적 문화적 측면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출처: 세계일보(2014.07.02)

12

1-4. 연구윤리 관련 법령 및 제도

dongA.com

2014-07-14 03:00:00 편집

연구부정 행위

뒤늦게... 교육부, 두루뭉술한 표절기준 구체화

김영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 청문 대상자들의 논문표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연구윤리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기로 했다. 현재의 정부 규정이 너무 두루뭉술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은 2007년 당시 과학기술부가 만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다.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시절(2008~2012년) 내 차례 개정됐지만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없다.

기왕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결과에 대해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헌 또는 기여 등을 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규정해놓은 정도다. '표절'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정도이며 위조, 변조, 표절 이외의 기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통인되는 행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고만 돼 있다.

정부 지침이 모호하다 보니 고위직 인사나 청문회 때마다 연구 부정에 관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학문 분야마다 기준이 달라서 구체적인 연구윤리 규정을 만들기 어렵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과학이나 연구소의 규정을 보면 훨씬 정교하다.

예를 들어 서울대 연구자가 2008년 만든 연구윤리규정은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즉 표절에 대해 스텝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 스텝이 5문장이나 10문장 이상인 경우 등의 인용을 통한 지식을 발췌·조용하는 행위 소정학칙 출처 및 인용 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훼손할 경우: 의문하는 것 등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뒤늦게 '학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올해 연구윤리 지침을 보완해 개정하겠다'면서 '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도 개정 지침에 맞춰 연구윤리 규정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연구윤리 지침 구체화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표절/자기표절/중복게재/이중게재
- 저자의 자격 및 올바른 저자표시
- grey literature와 학술지 논문 간 허용

◆ 지침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일시: 2015.06.03(수) 15시~18시30분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13

1-4. 법령의 제 · 개정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11.03 일부 개정)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위조 (재정의)
2. 변조 (재정의)
3. 표절 (유형화, 구체화)
4. 부당한 저자 표시 (용어변경, 유형화, 구체화)
5. 부당한 중복게재 (신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유지)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재정의)

14

1-4. 법령의 제 · 개정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11.03)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5

1-4. 법령의 제 · 개정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11.03]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16

1-4. 법령의 제 · 개정

◆ 이차출판과 중복게재 [연구윤리 지침해설서, p.72]

허용여부	용어	출처표시	부당이득(double count 등)
허용	이차출판	O	X
금지	중복게재	O	O
		X	X
	중복게재 (부당한 중복게재)	X	O

※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

- 허용되는 경우 : 독자층을 달리함(언어, 학문영역)
- 출판 요건
 - 승인(양 출판사로부터)
 - 1차 논문의 자료와 해석을 충실이 따름
 - 2차 출판임을 명기(제목 또는 각주)
 - 출판간격(1주일 이상)
- 유의사항 : 2차 출판은 별도의 실적으로 카운트 부적절

17

1-4. 법령의 제·개정

◆ 중복게재가 아닌 경우 [연구윤리 지침해설서, p.74]

다음의 경우들은 학계에서 통상 허용되는 중복게재의 사례들이다.

사례 ①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원고를 수정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사실을 밝힌 경우

사례 ② 자신의 학위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술지 또는 저서에 게재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힌 경우

사례 ③ 기존에 연구·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수합하여 인용·출처표시를 명확히 하고 학위논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사례 ④ 이전 게재·출판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 잡지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출판하는 경우

사례 ⑤ 자신의 연구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전문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출판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힌 경우

18

1-4. 법령의 제·개정

◆ 중복게재가 아닌 경우 [연구윤리 지침해설서, p.74]

사례 ⑥ 자신이나 타인의 연구 논문 등을 취합하여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서 등으로 출판하는 경우

사례 ⑦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판하면서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실을 재게재한 논문이나 저서에 명확히 밝힌 경우

사례 ⑧ 학술지에 짧은 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할 때, 관련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 표시를 하여 게재·출판한 경우

사례 ⑨ 이미 게재·출판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출처를 표시한 후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사례 ⑩ 기존에 발표한 자신의 연구 논문을 학교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재게재한 사실을 명확히 밝힌 경우, 단, 교내학술지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19

2. 연구윤리 정보의 활용



2-1. 연구윤리정보센터
[www.cre.or.kr]

2-2. 문장 유사도 검사 시스템
[www.kci.go.kr]

2-3.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시스템
[www.kird.re.kr]

20

2-1.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

◆ 정보센터 연혁 및 발전 과정

- 한국연구재단 지정 운영센터 : 소속(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출처: 신준석(2014.06.27, 발표자료)

21

2-2. 문장 유사도 검사 시스템(www.kci.go.kr)

◆ 문장 유사도 검사 시스템 구축[14.05.26 오픈]

- 논문표절 사전예방이 주목적 → 타인의 논문 표절기 용도 악용 우려
 - ※ KCI 회원이면 이용 가능하며, 120만 건 이상의 논문 축적
-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에 장착
- 대학에 활용 권고 필요성 :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의무화 연계



24

2-2. 문장 유사도 검사 시스템(www.kci.go.kr)



25

2-2. 문장 유사도 검사 시스템(www.kci.go.kr)



유사도 검사 목록 (파일별)

• 유의사항

KCI 문헌 유사도 검사에서 나타나는 유사도 수치는 단순한 자동검사 결과이므로, 문헌 간 유사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직접 검사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업로드한 파일들에 대해 각각의 유사도 검사 상세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명	미입력
비교 범위	[X] 논문 [X] 현재 업로드 파일
검사 설정	유사율 기준 [5어절], 인용문장 [포함], 출처표시문장 [포함], 목차/참고문헌 [제외]
평균 유사율	11%
등록 파일 수	4
검사완료 파일 수	4
검사불가 파일 수	0
검사 일자	2014.07.05 21:56:06
유사도 검사 상태	검사완료

통합결과 다운로드

번호	업로드 파일명	유사율	
1	01_2010_연구윤리 실천.pdf	29%	☐
2	03_2010_연구윤리 문화.pdf	5%	☐
3	04_2010_연구윤리 제도.pdf	7%	☐
4	05_2010_연구윤리 이해.pdf	5%	☐

목록

새로고침

수정

재검사

26

2-3.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시스템(www.kird.re.kr)

◆ 관련근거

● 2014~201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 연구윤리교육·연구기획 확대 및 검증시스템 구축
 - '15년 이후 학술·연구지원사업과 연구윤리 사이버 교육을 연계하여 연구윤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
 - ※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혜자는 반드시 연구윤리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도록 제도화

● 2016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 연구윤리 정립 및 연구관리체계 강화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15.11)」에 따라 각 대학에 연구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실시,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확대* 및 연구윤리정보센터 운영
 - ※ 연구윤리 사이버 교육 대상: (15) 연구책임자 → (16) 공동연구자로 확대

27

2-3.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시스템(www.kird.re.kr)

◆ 교육시스템 개발 현황

- 개발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 개발기간 : '14.5월~'15년 1월(9개월)
- 교육포털 : <http://www.kird.re.kr>
- 교육운영 : KIRD 사이버교육운영센터
- 교육문의 : 콜센터(1588-5834, e-kird@kird.re.kr)

◆ 교육콘텐츠 개발

- 과정구분 : 인문사회계 / 이공계
- 개발분량 : 각 과정별 5차시 개발(총 2H 소요)

◆ 교육대상 및 교육이수 기간

- 학술연구지원사업 책임자 / 협약서 상 연구개시 후 3개월 이내

◆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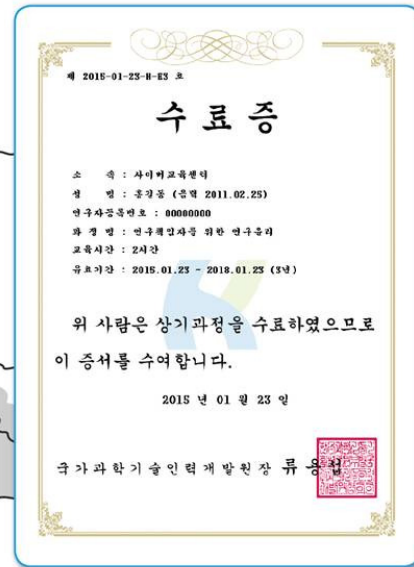
2-3.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시스템(www.kird.re.kr)

1. KIRD 교육포털 접속 - <http://www.kird.re.kr>

- 기존회원의 경우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① 로그인
- 비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후 ② 로그인

29

2-3.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시스템(www.kird.re.kr)



30

3. 종합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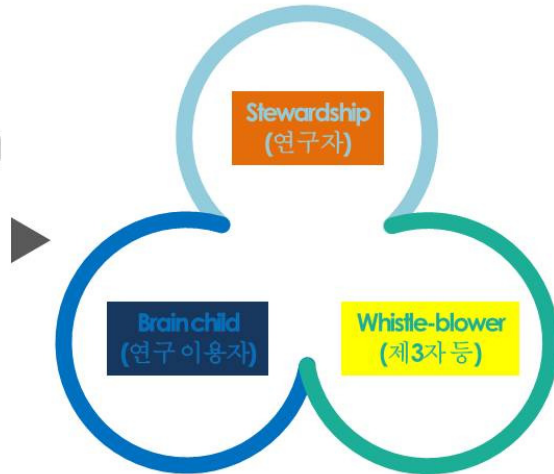
31

3-1. 연구윤리 인식의 전환

요격용 미사일 [흡집 내기 제보]

시한폭탄 [논문 작성자]

배신자/고자질 [선의의 제보자]



32

3-2. 연구윤리 인식의 전환

◆ 연구는 Research

◆ 과학은 누적적 활동[cumulative enterprise]

* 출처 : on being a scientist(NAS, 2009)

◆ 논문의 질 : 독창성 + 공정성

◆ 눈 덮인 광야를 지날 때는 **함부로 걷지 말아라**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오늘 내 발자국은 마침내는 **후세들의 길이 되리니**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 서산대사(休靜, 1520~1604)

◆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나, **윤리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 연구윤리는 연구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닌, **연구자를 보호하는 GPS**

33

감사합니다.

